

■ 제 목 : 축제 【양재천】



■ 위 치(도로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양재천 길)

■ 특 징

- 하천연장 15.6km에 달하는 양재천은 관악산,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과천 구간을 거쳐 서울 강남을 흐르는 한강 지류 중 하나임
- 양재천은 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 아래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되살렸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레크레이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천변길을 정비하였음
- 자연재료를 사용한 식생호안 도입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생물의 서식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맑은 물이 흐르고 옛 정취가 깃들인 자연에 가까운 하천을 재생시킨다는 목표 아래 학여울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계 학습의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선정릉



선정릉에는 조선 제9대 성종과 그 계비 정현왕후 윤씨를 모신 선릉(연산군 1년(1495) 조성)과 제 11대 중종을 모신 정릉(명종 17년(1562) 조성)이 있다.

사적 제199호인 선정릉은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한적한 편이어서 답답한 도심 속에서 잠시 일상을 뒤로하고 조용히 산책을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다.

봉은사



번잡한 도심의 한 가운데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봉은사는 그 외형적 규모뿐 아니라 역사적 측면에서도 서울의 대표적인 사찰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고층건물에 둘러싸여 있지만,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뚝섬나루터에서 즐고 있는 뱃사공을 깨워 나룻배를 타고 건너 한 오리쫓 한가로이 걸어 이르던 곳이 '뚝섬 봉은사'였다. 옛 정취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사찰의 빼어난 경관과 향기는 많은 시민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

코엑스



아시아 최대의 무역 시설 집결지인 코엑스 일대에는 코엑스 전시장, 코엑스 컨벤션센터, 아셈타워, 트레이드타워 등 대규모 국제적 전시, 회의 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 등의 국제 규모의 호텔이 수많은 내·외국인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더불어 현대백화점과 코엑스몰 등의 대규모 쇼핑 시설, 영화관, 도심공항터미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항상 많은 인파로 붐비는 곳이다.

■ 제 목 : 하늘아래 첫 다리 【횡성대교】



■ 위 치(도로명)

- 강원도 횡성군 상대리(고속국도 50호선)

■ 특 징

- 횡성대교는 산악지형의 계곡부와 영동고속도로를 잇는 연장 705m, 높이 92m에 달하는 4차로 교량임
- 건설당시 경제적이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 슬립폼(Slip Form) 공법 등 최첨단 공법이 적용되었음
- 거대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는 횡성대교는 우리나라 교량 건설분야에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으며,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교량으로서 주변 풍광은 그 높이만큼이나 시원스레 펼쳐져 마치 하늘에 떠있는 듯 한 착각과 함께 보는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함
- 예술성 및 기능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둔내자연휴양림



청태산 주위를 17만평의 대지로 둘러싸고 있는 이곳 둔내자연휴양림은 각종 야생동물 및 전나무 등의 침엽수로 가득 차있어 원시림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오대산, 치악산, 강릉 경포대 등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관광지와 인접해있어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도심에서의 찌든 공기를 벗어 던지고 맑은 공기와 함께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서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쉬어가기에 좋은 곳이다.

태종대



강림천변의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는 태종대는 조선 태종과 그의 스승인 운곡 원천석에 관한 일화로 그 시대의 일면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태종대 일원은 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강림천을 따라 곳곳에 맑고 시원한 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계곡들을 거느리고 있어 여름 피서지로 제격이다. 태종대 일원은 태종과 운곡에 얽힌 일화를 통해 교훈을 얻음과 동시에 계곡에서 더위를 씻을 수 있는 일급 피서지로서 한여름에도 비교적 찾는 이의 발길이 뜸해 호젓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다.

병지방 계곡



병지방 계곡은 어담산을 끼고 굽이쳐 흐르는 산세 깊은 골짜기로서 크고 작은 바위사이를 흐르는 계곡물의 맑기가 명경지수와 같아 보는 이들의 감탄을 절로 자아내는 곳이다. 계곡주위로 병풍처럼 둘러친 산세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휴식처를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 청정한 자연과 계곡미를 감상하며 조용히 쉬었다 가기에 그만이다.

■ 제 목 : 한국의 금문교 남해대교



■ 위 치(도로명)

- 경남 남해군 설천면 ~ 하동군 금남면(국도19호선)

■ 특 징

- 한국의 금문교라 불리는 남해대교는 1973년 개통되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일컬어지는 현수교로서 길이 660m, 높이 80m의 국내 최초 현수교임
- 남해대교가 가로지르는 노량해협은 거센 물살은 남해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산 증인으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 시작된 곳이며, 고려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무수한 유배객들이 자신의 적소로 건너오기 위해 나룻배를 탔던 한 맺힌 곳이기도 함
- 부식으로 인해 잿빛을 띠던 남해대교는 2003년 산뜻한 선홍색 빛으로 새단장하여 창선-삼천포대교와 함께 섬으로 가는 남해군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다시 태어남
- 예술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충렬사



남해충렬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순신 장군이 3개월간 묵혔던 자리에 아직도 가묘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남해충렬사는 규모가 통영충렬사 등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사적 23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우암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쓴 이충무공묘비와 사우 그리고 충무공비와 충민공비, 내삼문, 외삼문을 모두 갖추고 있고 청해루와 장군의 가묘가 잘 정리되어 있다.

이충무공전몰유허



관음포 이충무공전몰유허는 일명 이락사라고도 불리며, 사적 제232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곳은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유해가 맨 처음 육지에 오른 곳으로, 이락사 앞 뜰에는 충무공 순국을 기념하기 위한 유언비가 역사를 증명하듯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 있다. 이곳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사철 푸른 육송이 400여 년 전의 그 날을 되살려내 듯 많게는 10개에서 적게는 4개의 가지가 땅에서 바로 가지를 벌린 채 40~50미터의 오솔길을 이루고 있다.

거북선



1999년 12월 해군본부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하여 이곳에 배치된 거북선은 현재 남해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공개되고 있다. 인근의 충렬사 및 이충무공전몰유허와 연계하여 관광한다면 역사교육장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인근 노량해안도로를 돌면서 빼어난 해안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빠질 수 없는 관광 포인트다.

■ 제 목 : 거대한 인공도로, 인공호수 【석문방조제길】



■ 위 치(도로명)

- 충남 당진군 석문면(석문 방조제 길)

■ 특 징

- 석문방조제는 총연장 10.6km로 단일 방조제 중 국내에서 가장 긴 방조제임
-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가곡리를 연결하며, 석문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생겨난 석문호는 거대한 인공 호수로서 농경지, 공단부지 등이 한데 어우러져 시원한 풍경을 자아냄
- 방조제를 따라 펼쳐지는 직선 도로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이자 꿈결 데이트 코스로서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방조제가 끝나는 지점에는 바다로 나가 볼 수 있는 길이 있고 바다로 뻗은 선착장에 서면 바다에 떠있는 어선들의 풍경이 정겹게 펼쳐짐
- 기능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왜목마을



왜목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출, 일몰, 월출 풍경까지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명소다. 동해의 일출이 장엄하고 화려하다면 서해 왜목마을 일출은 소박하면서도 예쁘고 서정적이다. 또한, 이곳 일몰은 용광로 같이 활활 타오르던 태양이 서서히 빛을 감추면서 수평선, 하늘과 함께 바다전체를 검붉게 물들이며, 바다 속 깊이 잠겨 버리는 모습이 가히 장관이라 할 수 있다.

난지도해수욕장



난지도 해수욕장은 "섬"속의 해수욕장으로 서해에서 보기도 물게 깨끗한 물과 곱고 하얀 모래 등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서해안 최고의 가족단위 피서지다. 특히, 여객선을 이용해 해수욕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가면서 주변의 크고 작은 아름다운 섬과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갯바위 낚시도 가능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천후 자연 휴양지다.

도비도 농어촌 휴양단지



도비도 농어촌 휴양단지는 원래 섬이었으나, 대호방조제를 축조하면서 육지로 변한 곳으로서 환경농업의 산 교육장이다. 주변 갯벌에는 조개, 게, 고동, 낚지 잡이를 위해 주말이면 온통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겨울철에는 주변 농경지가 환경농업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먹이가 풍부해 많은 철새들이 몰려와 장관을 이룬다. 단지 내에는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전망대, 유람선 선착장, 암반해수탕, 조각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주변에는 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 제 목 : 역사 속에 닫혀있던 도로 【청남대 진입로】



■ 위 치(도로명)

- 충북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청남대 진입로)

■ 특 징

- 대통령 별장으로 이용되던 청남대는 20년 만에 개방되어 오늘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이며, 경찰초소가 있던 13문에서 22문 사이에 조성된 2.3km의 튜립나무 가로수 길은 그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함
- 15m 이상 큰 키와 위상을 자랑하는 튜립나무는 봄에는 녹황색의 튜립모양 꽃이 피며, 여름에는 터질 것만 같은 푸름을 머금은 잎, 가을에는 하늘을 노랗게 물들이는 고운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넓은 꽃받침에 눈송이가 앉은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여 4계절마다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함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청남대



청남대는 충청북도 청원군 대청댐 부근 약 56만평의 면적에 지어진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20여 년간의 베일을 벗고 2003. 4. 18 충청북도로 이양되면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청남대는 한국의 현대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이천 온천, 에버랜드, 수안보, 유성 등 중부권 관광지와 연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경유관광지로서 높이 평가되는 곳이다.

문의 문화재단지



청원군 문의지역은 오래 전부터 인류가 정착하여 살던 유서 깊은 지역으로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단지 내에는 문의 가호리 고인돌 등의 거석문화재, 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 문산관, 옛 민가, 비석거리 등이 조성되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옛 조상들의 생활풍습을 알려주는 양반가옥, 주막집, 토담집, 대장간, 성곽 등을 재현하였으며, 박물관에는 충북유형문화재 제170호 영조태실가봉의궤를 비롯하여 군내에서 수집한 각종 유물과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기와를 시대별로 분류, 전시하고 있다.

작은 용굴



작은 용굴은 구룡리 마을 뒤에 있는 석회암 동굴로서 용이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깃들여 있는 곳이다. 동굴은 석회암 지대에 발달된 수평동굴로서 굴의 크기는 입구너비 2.6m, 높이 3.5m, 길이 60m이며 입구에서 32m 되는 지점에 12.3m×7.3m 정도 크기의 광장이 있어 선사시대 사람들이 생활공간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확한 유적의 성격이나 상황은 알 수 없다. 두루봉동굴과 함께 금강유역의 구석기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유적지다.

■ 제 목 : 왕벚나무 터널 【대원사 진입로】



■ 위 치(도로명)

-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농어촌도로, 문덕 204호선)

■ 특 징

-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백제 천년고찰 대원사에 이르는 진입로를 따라 이어진 5km 구간은 좌우측으로 20년생 왕벚나무가 가지가 맞닿을 정도로 터널을 이루고 있어 장관임
-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녹음과 시원한 계곡, 가을에는 오색단풍, 겨울에는 설화가 만발하여, 주암호에서 산사에 이르는 이 길은 연인, 가족과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아름다운 곳임
- 왕벚나무 거리가 아름다움을 잃지 않도록 보성군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관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원사 주관 '벚꽃길 달리기대회'와 '거북이마라톤' 등의 거리행사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대원사



대원사는 신라 지증왕 때에 아도화상이 창건했으며, 그 후로 고려시대 조계 제5세 원오국사가 중건하였다. 여순 사태와 6·25를 거치며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버렸으나 복원사업으로 상당부분이 복원되었으며, 현재도 옛 모습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근처에 백민 미술관, 송재 서재필 생가 및 기념공원, 주암호반, 고인들 공원과 연계되는 교육문화 탐방 루트로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재필기념공원



이 기념공원은 서재필 선생 생전의 위업을 기리고자 그의 생가 근처에 조성된 공원으로, 서울에 있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독립문과 서재필 선생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또한 사당과 생가를 잇는 2km 길이의 송재로와, 주암호변에 조각공원, 유물전시관, 토산품센터, 야외공연장 등이 주암호의 경관과 잘 어우러지게 조성되어 있어 호국정신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국민교육장으로서 관광객을 모으는 곳이다.

보성 대한다업관광농원



전남 보성에 있는 대한다업관광농원은 한국 유일의 차(茶) 관광농원이다. 무려 30여 만평이나 되는 드넓은 평원이 모두 차밭으로 조성되어 농원 건물과 함께 그림과 같은 경관을 이루며, 농원 입구에는 전신주 크기의 아름드리 삼나무들이 서있어 신선감이 넘친다.

최근에는 한국차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농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직접 차잎을 따는 건전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 제 목 : 구천동 제1경 나제통문(신평령 빼재까지)



■ 위 치(도로명)

- 전북 무주군 설천면(국도 37호선)

■ 특 징

- 국도 37호선의 무주구천동 계곡 구간은 주변 풍경이 매우 아름다운 구간으로 무주구천동 계곡 33경중 제1경인 나제통문을 시작으로 구천동 계곡을 따라 경승지가 이어져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
-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경계관문이라 해서 이름이 붙은 나제통문을 경계로 동·서 두 지역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 이르기까지 풍습과 문물이 매우 다른 지역이었으며, 600년이 지난 지금도 통문을 경계로 언어와 풍습에 차이가 있다고 함
- 무주와 거창의 경계인 빼재(신평령)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시계는 거칠 것 없이 시원한 풍광을 연출하여 보는 이들의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곳임
- 역사성 및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덕유산



덕유산은 향적봉 정상에서 발원한 옥수가 흘러내리며, 구천동 33경을 만들고 북사면의 무주 리조트, 서남쪽의 칠연개곡을 이루어 수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12대 명산 중의 한 곳이다. 덕유산은 봄철이면 칠십리 계곡에 빨간 철쭉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짙푸른 녹음으로 피서객을 손짓하며, 가을이면 붉게 타는 단풍으로 만산을 물들이고,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뒤덮인 설경 속에 설화를 피워 신비경을 이룬다.

덕유대종합야영장



무주구천동 칠봉산 자락에 시설된 종합야영장은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대한 면적의 대단위 야영장이다. 텐트 설치를 위한 영지 외에도 야외무대가 딸린 대규모 집회장과 강의 및 회의장으로 이용되는 연수시설을 비롯하여 체력 단련장, 샤워장, 주차장, 헬기장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이곳은 여름철이면 수많은 캠프가족들의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루는 구천동의 명물이다.

부남강변유원지



부남의 중심부를 구비치는 금강천은 금강 최상류에 속하여 강바닥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청정수를 자랑한다. 맑은 물에서만 볼 수 있는 쏘가리, 꺾지, 어름치, 모래무지, 자가미 등이 서식하며, 강변에 늘어선 백사장과 기암절벽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 가는 곳마다 유원지다. 상굴암 마을 건너편으로 병풍처럼 둘러친 기암절벽과 하굴암마을 건너편 황새목 절벽, 대티마을 상사바위, 봉길마을 각시바위 등은 이곳의 빼놓을 수 없는 경관을 이루고 있어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다.

■ 제 목 : 해변을 따라 산을 이어주는 도로 【제주 사계해안도로】



■ 위 치(도로명)

-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군도14호선, 상모사계선)

■ 특 징

- 안덕면에 위치한 사계리 해안도로는 자연의 집합체인양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해안을 둘러싸듯이 산방산과 송악산이 해안의 양쪽 끝에 버티고 있어 평온하고 안정감이 드는 드라이브 코스임
- 남제주군의 대표적인 해안도로로서 산방산과 송악산 사이로 해안을 보며 드라이브할 수 있고, 낮은 지대로 인해 운전자의 눈높이로 해안 조망이 가능함
- 이곳은 해안과 산, 도로가 조화를 이루며 그려지는 뛰어난 풍광뿐만 아니라, 바다를 삼키는 듯 한 환상적인 낙조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곳임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마라해양군립공원



천혜의 섬 마라도와 가파도까지 이어지는 빼어난 해안 절경과 대정읍 상모리, 하모리, 가파리, 마라리 해상과 안덕면 사계리, 화순리, 대평리 해안 일대, 송악산의 풍광으로 이루어진 주변경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곳은 청정바다와 진귀한 해양생태계를 자랑하고 있으며, 해저의 세계, 유람선관광, 체험어장,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남제주의 영원한 명소라 할만하다.

산방산



영주 10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산방산은 산 속에 방처럼 굴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 자체의 모양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바라보는 해안경관이 뛰어나 많은 이들이 찾는다. 산방굴 안에는 천장에서 수정 같은 물이 떨어져 신비롭게 고이는 까닭에 수도승이 불상을 모셔놓고 수도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고려 말 고승 혜일도 산방법승이라 하여 이곳에서 수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머리해안



용머리해안은 산방산 앞자락에 용이 머리를 쳐들고 순식간에 바다로 뛰어들려는 자세를 취한 듯 한 절경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 30~50m 절벽이 물결치듯 둘러있는 풍경은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며, 해식동굴, 수직절리, 단애, 돌계구멍 등이 어우러진 기기묘묘한 기암절벽들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신의 조화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풍경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 제 목 : 아름다운 소리가 귓가에 머무는 학동~해금강 해안도로



■ 위 치(도로명)

- 경남 거제시 남부면 ~ 장승포동(국도 14호선)

■ 특 징

- 학동·해금강 해안도로는 시원스러운 바다풍경과 해안절경이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곳을 찾으면 아름다운 해안절경과 함께 붉게 물든 동백숲과 도로변에 핀 갖가지 야생화로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음
- 학동몽돌해수욕장의 몽돌이 바닷물에 쏠리는 소리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선정될 만큼 운치를 더하며, 학동해수욕장부터 해금강까지 형성되어 있는 학동동백림과 팔색조 번식지는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
- 함목 삼거리에서 해금강마을 가기 전에 있는 도장포마을에는 신선대와 바람의 언덕이 있으며, 이곳 주변도 시원스러운 바다풍경과 아름다운 해안절경으로 찾는 이에게 즐거움을 더함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학동몽돌해수욕장



이곳은 몽돌이라 불리는 조약돌이 길이 약 1.2km, 폭 50m, 면적 3만km²에 펼쳐져 있어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다. 약 3km의 주위 해안을 따라 펼쳐진 동백림 야생군락지와 6월에 왔다 9월에 가는 크기 약 20cm 정도의 팔색조로도 유명하다. 봄, 가을에는 해금강을 비롯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상관광객이, 여름에는 피서객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곳이다.

가라산



거제의 최남단 해변에 위치한 가라산은 거제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그 높이는 585m이며, 능선은 잡목으로 이어져 가파르고 정상은 바위산이다. 정상에는 봉수대가 있으며 거제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멀리 남해를 비롯하여 고성만과 한려수도가 그림같이 펼쳐지며, 남서쪽은 한산도, 비진도, 매물도, 가오도, 대소병대도 등 많은 섬들이 파도에 춤추며 장관을 이룬다.

해금강



두개의 큰 섬으로 연결한 해금강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며 1971년 명승2호로 지정되었다. 원래 이름은 갈도(칠훈)로서 지형이 칠히리가 뺀 내린 형상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갈도보다 남해의 금강산을 뜻하는 해금강으로 널리 불리어지고 있다. 썰물 때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십자동굴, 사자바위가 푸른 물결과 함께 절경을 이루며, 일월봉에서 보는 일출과 월출은 가히 환상적이다.

■ 제 목 : 땅끝 가는 길



■ 위 치(도로명)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 송지면 엄남삼거리(국도 77호선)

■ 특 징

- 전남 해남군 북평면~송지면 구간의 국도 77호선 구간은 일명 '땅끝 가는 길'로서 남해안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해남의 대표적인 해안관광도로임
- 도로 연변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의 경치를 전망할 수 있는 다수의 소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해안을 따라 바라보는 다도해의 도서경관과 낙조가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인 곳임
- 인근에 송호해수욕장, 사구미해수욕장, 드라마 '허준' 촬영 세트장, 달마산, 땅끝 전망대 등 볼거리가 다양하고, 국토순례의 시발지로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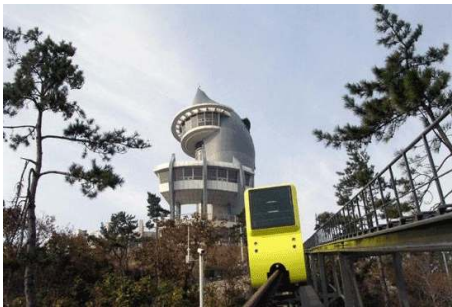
달마산



달마산은 남도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산으로 공룡의 등줄기처럼 울퉁불퉁한 암봉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산행시 멀리 해안 경관을 보는 즐거움이 함께해 지루함을 느낄 수 없는 산이다.

산행은 약 6km, 3시간에 불과하지만 암릉, 억새, 다도해 조망 등 온갖 재미를 두루 볼 수 있으며, 특히 바위능선과 함께 억새풀과 상록수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것이 이 산의 특징이다.

땅끝 전망대



땅끝 전망대는 해남의 주요한 관광명소로 갈두산 사자봉 정상에 위치한다. 북으로는 우거진 송림이 있고 동, 남, 서로는 시야의 막힘이 없는 드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지며, 남으로는 드넓은 대양의 시점으로서 흑일도, 백일도, 보길도, 노화도 등 다도해 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날씨가 쾌청한 날에는 추자도 및 제주도를 바라볼 수 있으며, 일출과 일몰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송호해수욕장



송호해수욕장은 해남의 가장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송호(松湖)는 해변가에 노송이 무성하고 바닷가의 고운 모래와 맑고 잔잔한 물결이 호수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송호 해수욕장은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놀기에 좋으며 수백년된 해송(海松)이 풍치림(風致林)을 이루고 있어 가족단위 피서지로 제격인 곳이다.